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인봉하여 세운 언약 (느 9:31-38)

## The Covenant that Affixed Seals to an Agreement (Neh 9:31-38)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하게 되고, 길게는 1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의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다 지낸 후 이를 만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박노철 목사

The wall of Jerusalem was completed, and many people lived within the wall. The Israelites attended worship before God for the first time in as long as 140 years and listened to God's word, confessed with tears, and celebrated the feast of Tabernacles before God with great joy and happiness. And after they celebrated the feast of Tabernacles, they assembled together again.

### 1.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1-2절).

백성들이 다시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1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능욕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을 중심으로 왕정시대를 열어가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때문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1. God's truthfulness never changes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same month, the Israelites gathered together, fasting and wearing sack-cloth and having dust on their heads. Those of Israelite descent had separated themselves from all foreigners. They stood in their place and confessed their sins and the wickedness of their fathers"(vv. 1-2).

The people had to gather together again, fast, wear sackcloth, have dust on their heads, and pray to God. They, through God's word, realized the reason why they had been captured alive by Babylon for nearly 140 years, had been violated and had undergone so much suffering.

By confessing their sins, the people of Judah could not help examining the past history. By praying to God, they knew and concretely understood the reason why God chose Abraham, rescued them from Egypt, conquered the land of promise, Canaan, enriching their lives, and began the period of the monarch rising up King David, thanks to God's grace and His truth. And they realized that the work of Israel did not happen by chance but in the abundant presence of God.

### 2.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느헤미야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신실하셨지만 자신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9:15-17, 25, 26, 29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셨습니다. 그의 특유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불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 2. The Israelites who were arrogant and disobeyed

In Nehemiah 9, God was truthful to Israel and He spoke, "Because they were arrogant by themselves, they didn't obey God's word." And this repeatedly appears(vv. 9:15-17, 25, 26, 29). God was gracious, merciful and slow to anger. He kept His covenant, gave a chance for confession, and held them to His unique truthfulness. Nevertheless, the Israelites repeatedly committed a sin.

### 3.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33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 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갖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 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분명한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37-38절).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 드리고,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하였습니다.

### 3. God's grace continues to the one who truly confesses

"In all that has happened to us, you have been just: you have acted faithfully, while we did wrong"(v. 33).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blame God for the sufferings that they underwent. They realized the reason why after Judah had collapsed, they were caught by Babylon as a war prisoner, and went through various hardships and shame, not due to God, but from leaving God's word themselves, and acting in their own lordly manner.

The truthful confession is one in which we recognize our sins and completely turn back from the wrong path. While we are living in the world, we cannot help committing sins. However, God's children have an opportunity to confess their sins. And the truthful confession means that we must determine and make up our mind to confess our sins before God and people(37-38).

The people of Israel realized their sins, and gave their promises to God to never leave His word. And then in order to stand firm in their determination, the Israelites made a binding agreement, putting it in writing, and affixed their seals to it.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받아 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My beloved Christians!

God is the God of love who gladly receives all people who confess, and He forgives their sins. God is greatly pleased when sinners truly confess and come back to Him. By holding the cross of Christ firmly with truthful confession and thorough obedience,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receiving God's life in abundance.

이웃사랑 · 아가페타운 건립 ·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

# 2011 사랑의 바자 -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

## 9월29일(목)-30일(금), 서울교회

우리 교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2011 사랑의 바자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를 표어로 이웃 사랑의 실천과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 교회목표증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힘쓴다. 또한 바자 시작 전부터 진행되는 사랑나눔A+캠페인과 온라인 바자물을 통한 사랑의 우물과기운동을 통하여 9월 한달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7]

(문 15) 인간의 수명이 옛날만큼 길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창 5:5, 시 90:10) 그들의 시간 계산법이 지금과 다른 것 이었 나요?

(답) :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당시의 환경조건은 인간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에덴동산은 인간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키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후까지도 홍수 심판 이후의 환경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상 질병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은 점차 나빠지게 되어 무서운 홍수심판 이후에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수명은 점진적으로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었습니다.(시 90:10)

인간 타락 이후 죄에 대한 저주가 육신적 체력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한 시간 계산법도 지금과는 달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천문학자에 의하면 지구의 회전속도가 지금보다 빨랐을 것이라는 이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창 1:14에 의하면 지구의 매일 회전은 처음부터 표준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지구의 회전속도는 창조 이래 절대 불변은 아니지만 거의 변동 없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 제4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9월5일(월)-11월7일(월) 10주간 /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제4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와 목회"를 주제로 9월5일(월)부터 11월7일(월)까지 10주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1교시(오후2시 - 오후3시30분)는 김정우 교수가 창세기 강해(12-50)를 하고 2교시는 주제에 따라 박노

철 목사 외 7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특별히 9월5일 첫째 주 1교시 강의는 김재진 목사가 보록강의를 한다. 목회자들의 목회발전과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1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 9월5일(월)-11월13일(주일) 10주간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5일(월)에 개강하여 11월13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성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 일정은 오늘 후보

간지로 나가는 안내브로슈어를 참고하기 바란다. 천국 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2011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에 참여를 기다린다. 신청서는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받는다.

## 2011 사명자대회 준비 시작되다

### 10월9일(주일)-11월27일(주일)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 2011년 사명자대회 준비가 시작 되었다. 10월9일(주일)부터 11월27일(주일)까지 50일간 진행될 사명자 대회가 잘 준비되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명자 대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지 도 : 정수길 목사
- 본부장 : 하인선 장로
- 차장 : 최형렬 집사
- 진행분과 : 이강인 집사
- 기도분과 : 이희국 집사
- 안내분과 : 이승래 집사
- 봉사분과 : 김진환 집사
- 홍보분과 : 서춘식 집사
- 전도분과 : 원용규 집사
- 교육분과 : 백승갑 집사
- 재정분과 : 송인수 집사

## 다락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 9월2일(금)부터 다락방 모임 개학

무더운 여름기간동안 방학에 들어갔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 9월2일(금)부터 다시 개학한다. 교구장, 교구 간사, 다락방장들은 그동안 축적된 영적 힘을 쏟아 다락

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또한 다락방 리더 훈련은 8월31일(수) 수요일부, 2부 예배 후부터 다시 시작된다.

## 2011년 8월 학습 ·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4일 수요일 1, 2부 예배시 2011년 네번째 학습 ·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김광배 문광연 서주희 윤용수 이강일 이동호 이석현 이재훈2 임보빈 제명수 제연주 허성경 홍석호 황희진 계 14명

· 입교자 : 강요셉 권규현1 권순용 김민선2 김유신 남기영 박소연3 박찬우 안세진 이정빈 장원태 계 11명  
· 개종 : 라승현 계 1명  
· 학습자 : 교회회 유광숙 이상현2 전호민 최원1 홍재현 계 6명  
· 유아세례자 : 곽동은 유지원 이민준 이준혁1 계 4명  
총 36명



8월 26일(금)에 있었던 다락방지역 리더 일일수련회에서 박노철 목사는 "다락방 지역의 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8월 26일(금) 자녀를 위한 특별금요기도회에서 임우민 교수가 특강하였다.

오정수장로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 부회장 출마

# 오정수 장로, 출사포 던지다



우리 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수 장로가 전국장로회연합회(이하 전장연) 수석 부회장에 출마했다. 강남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석 부회장 후보에 추대된 오정수 장로는 지난 8월 19일 후보 등록을 하므로 동남노회 소속 후보 1명과 경합을 벌이게 되었으며, 선거는 총회가 열리는 11월 17일에 있게 된다.

전장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전국 장로들의 연합 기관으로 1972년에 만들어졌으며 장로회 간의 유대 증진은 물론 국내외 선교와 사회 복지, 장학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체이다.

오정수 장로는 그간 전장연의 회계와 재정부장직을 역임했고 현재 전장연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이번에 출마한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오정수 장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수석부회장 후보로 적극 추천하며 출마를 격려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듯이 단점도 있다. 내가 오정수 장로를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추천하는 것은 그에게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이기에 조금도 서슴없이 오정수 장로를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칼빈은 믿음을 안경과 같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현미경의 렌즈로 보고, 멀리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은 망원 렌즈로 볼 수 있듯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범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오정수 장로를 나는 강산이 몇 번 바뀌는 세월동안 옆에서 모시고 동역해 왔다. 그가 섬기는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창립될 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을 받았다. 예배 할 공간도 강대상도 없는 상황에서 오정수 장로는 구제위원장으로 교회 봉사를 출발했다. 대개 구제는 천천히 해도 되는 줄 알지만 서울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밖으로 내 보내기로 하고 기도하며 달려왔다. 그가 기획위원장을 하던 2010년도엔 72.4%를 대외로 지출하여 구제, 선교 그리고 미자립 교회돕기와 장애인 전문대학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문제의 문제성을 지혜롭게 푸는 사람이다.

지상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오정수 장로는 거침없이 해낸다. 칼빈은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누고 비본질적 문제는 문제 삼지 말라 했다. 언제부터 우리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느냐는 밥그릇 타령은 처음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율법주의자들을 타파했던 것과 같다. 어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도 묻지 않기로 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믿는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어느 지방, 어느 학교 출신이든 상관치 않고 오정수 장로는 교제의 문을 크게 열고 산 사람이다. 그는 주변적 문제 때문에 근본문제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론을 항상 주장하면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 연합 정신이 투철한 폭 넓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 연합 정신이 투철한 폭 넓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 ”**

**“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종으로서 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 ”**

그는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풀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正道)만을 걷기를 소원한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세사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핑 잡는 놈이 매라는 등식 하에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들도 금권, 폭력, 비난, 저주 심지어 자살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황금률을 오정수 장로는 체득하고 실천하는 신행 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사는 이다. 그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항상 우선했다. 서울교회 예배당 건립 시 건축위원장으로 새벽기도 끝나면 헬멧 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어둠이 깔릴 때까지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쳤다. 심지어 자기 회사에 국제청 감사가 나왔는데도 부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교회 건축에 전념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 할 것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능력없이 문제를 다루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다. 오정수 장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의욕만 갖고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있는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했지만(LG 그룹에서 특별대상을 몇 차례 받은 바 있고) 받은 물질을 주인 뜻에 맞게 바칠 줄 아는 이다. 교회 건축 시 전체 건축비의 거의 1/3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과 고가의 파이프로오르간을 기증했고,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이영희 권사는 교회 건축 당시 10층 높이의 고층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배설물 통을 새벽마다 비우는 헌신을 함으로 눈물겨운 교회 사랑의 본을 보이며 모범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는 특별히 교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교역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한 교역자의 지도를 따른다. 교회와 노회를 사랑하고 총회 회계, 재정부장직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능력도 보여 주었다.

그는 중간 지도자로서 자기 분수를 알고 주인의 뜻을 찾고 수행하는 신실한 청지기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중간 지도자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투철한 바른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무사기환의 희생정신을 갖고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킬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절대 신념을 가지고 국제적 협력자 정신을 가진 성경적 지도자상을 볼 수 있기를 아쉬워하고 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종으로서 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정수 장로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과찬을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득불 자랑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 나는 부득불 오정수 장로를 천거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의 장로의 위치는 감리교나 침례교의 장로와는 그 위상이 다른 것은 자다가 공인하는 바와 같다. 이 같이 중요한 장로들의 연합기관의 지도적 위치에 서는 것은 개인과 개교회의 소원이나 명예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정수 장로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의 개인이나 그가 속한 교회의 능력과 지원만으로는 감당기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간섭과 은혜가 절대로 필요할 터이니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다면 우리교단 발전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장로님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빈다.”(한국장로신문 7월 9일자 게재)

1983년 37세의 이른 나이에 총현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1991년 서울교회가 창립될 때 오정수 장로는 자칫 대형교회의 장로로 안주할 수도 있었으나 오직 진리를 좇아 서슴지 않고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이제 그는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협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2011 사랑의바자

# 사랑 나눔

**최학인 장로(사랑의 바자 위원장)**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 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2011 사랑의 바자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를 표어로 이웃 사랑

의 실천과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자 시작 전 사랑나눔A+캠페인과 온라인 바자물을 통하여 9월 한

달간 바자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서울교회는 지난 91년 설립 이래 교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자를 해마다 열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선진국형 복지마을을 건립하기 위해 마련하는 바자는 올해로 6년째입니다. 올해는 농어촌교회의 지원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을 복지타운 건립과 이웃 사랑 실천, 농어촌교회 돕기에 쓸 예정입니다.



이종운 원로목사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힘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푸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 그동안 일부 복지관이나 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교회는 상당수 있었지만, 단일교회가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선 드문 일로써 아가페타운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호산나대학이 이미 건립되었고, 노인 요양 및 의료시설들의 건립을 위해 기도에 있습니다. 2011 바자를 통해 올해도 이어지는 서울교회의 사랑나눔으로 우리는 소외된 이웃 곁으로 성큼 다가서며 아가페타운의 완공을 위해 힘을 보

태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회 바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교계에서도 바자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각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1 사랑의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도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김지영 성도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김지영 성도는 미국 오벌린 음대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뉴욕의 맨해튼 음대 대학원에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오늘은 "너 하나님께 이 끌리어(G. Neumark곡)", "은 맘 다해(B.Mason곡)", 등 세곡을 김윤지 성도(수요1부예배 모르가니스트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월 28일(주) 대양교회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9월 3일(토) 사랑의 쌀 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한다.
- 특담: 11교구 박지훈 김고는 성도(김광룡 집사 이정임 집사 차녀)
- 임명: 12교구 나소정 집사 단국대학교 연구전임교수
- 이사: 정병무 장로 박경희 권사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704 씨니 벨리아파트 103동 1802호 Tel. 031)282-9798

- 주간식당봉사: 한나전도회(8.28) 리브가전도회(9.4)
- 금주의 식사: 2교구 유관모 집사 조정임 성도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천국시민 양성

## 특례입시 기도모임

**이영수 성도(16교구)**

특례입시기도모임은 작년 9월 해외에서 들어와 낯선 환경과 특례입시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좇는 가정들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70인전도대소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모임이 입소문 나면서 귀국하는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은 한알의 겨자가 이곳에 뿌려져서 현재 70여명의 특례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수요일 1시 903호에서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저희 부모들을 회개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시며, 자녀들 또한 세상의 문턱을 넘기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의 연합함을 아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불러 주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치동 전역과 세계적으로 서울교회 특례

이 서울교회 특례기도모임에서부터 세계 열방까지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시가 끝나면 세계 각국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질 귀한 가정들이 서울교회에서 받았던 그 많은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던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며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특례기도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힘을 내세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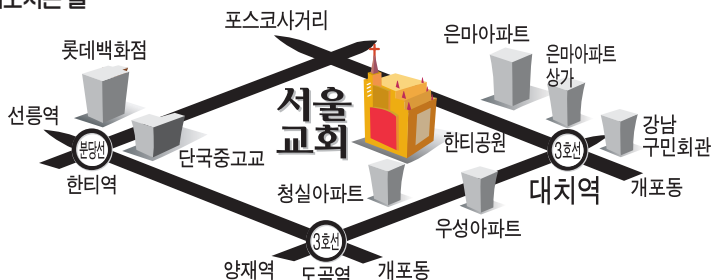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시 시작하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의 기쁨과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도록'
2. 개혁을 맞은 모든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비전 가운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3.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출마하신 오정수 장로님과 함께해 주셔서 모든 과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